

예비교사 대상 미술과 수업 컨설팅 사례 연구*

안금희**·김선아***

|| 요약 ||

미술과 수업 컨설팅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을 실행하고 이러한 수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미 있는 수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중심의 컨설팅, 수업 중심의 컨설팅, 반성적 사고 중심의 컨설팅의 의미를 고찰하고 예비교사 대상의 컨설팅 사례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 컨설팅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이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컨설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은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는 임상 장학의 개념보다는 교사 교육의 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는 개인의 교육 철학과 교직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여 현장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를 파악하는 수업 실행 이전 과정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수업 컨설팅, 예비교사 컨설팅, 반성적 사고

I. 서론

미술과 수업 컨설팅이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을 실행하고, 이러한 수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미 있는 수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인교육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예비교사용 미술과 수업 컨설팅 교재 개발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본 학회 회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본 학회 회원, 한양대학교 조교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컨설팅은 기존 장학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진동섭(2003)은 수업 컨설팅이란 교사의 수업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교 컨설팅이라고 정의하였다. 수업 컨설팅이란 수업자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을 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진동섭, 김도기, 2005).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학 연구나 수업 컨설팅 연구는 비교적 많이 되었지만,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컨설팅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술 수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와 예비교사의 컨설팅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비교사는 현장 교사와 다르다는 점에서 수업 컨설팅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리라는 가정으로 연구를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예비교사가 필요로 하는 수업 컨설팅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예비교사가 현장 교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비교사는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교과 교육에서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점, 교과 교육의 이론적 내용을 실천적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장 교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내용은 바로 현장 경험의 차이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교사 교육에서 혹은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실천적 지식이나 교수법적 지식을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기 보다는 그들의 현재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살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한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갖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희와 안금희(2007)의 연구에서 현장 교사의 경우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야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수업의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였으며 컨설팅의 시기로는 수업 계획 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 대상의 컨설팅 사례 연구를 통해 컨설팅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대상의 컨설팅이 컨설팅의 본래 의도를 살려 예비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수업에 초점을 둔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중심의 컨설팅, 수업 중심의 컨설팅, 반성적 사고 중심의 컨설팅의 의미를 고찰하고 예비교사 대상의 컨설팅 사례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 컨설팅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미술과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수업 장학이나 미술교육에 관한 특정 이론이나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하 기보다는, 미술 수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수업의 맥락에 기초한 수업 컨설팅 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 현장에 나갈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의 방향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술과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예비교사 중심의 수업 컨설팅

미술교과에서의 수업 장학의 체계는 교과, 대상, 수업 환경이 가지는 다양성을 고려하 여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가 전문가에게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받는 위 치가 아닌 수업에서의 문제를 탐색, 정의, 분석하여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예비교사 주도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개발되는 수업 컨설팅을 위하여 Glatthorn(1997)의 개별화된 수업장학(Differentiated Supervision)과 Homer의 지원적 수업장학(Supportive Supervision Model) 모델들은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한 개별화된 수업 장학은 각 교사가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평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력적 수업 장학 의 모델에서도 교사를 문제상황에 놓인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수업에 대하여 누구보 다 잘 알고 있으며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수업 장 학에서 교사는 필요에 따라 직접적인 장학, 집중적인 장학, 자기주도적인 장학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장학사와 교사의 협력적인 대화와 관계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모델의 공통점은 수업 장학이 전문가에게서 교사로 전달되는 위계적인 관계 가 아니라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즉 전문가는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분석 관점, 피드백 등을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수업의 문 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 자신의 수

업에서 어떤 점들을 왜 개선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기 개발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 또한 예비교사가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예비교사의 경우 수업 장학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예비교사 자신도 '초보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교사를 학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로 보고 일방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업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수업 설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결과의 맥락에서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예비교사 자신이다.

수업 컨설팅의 과정은 예비교사 스스로 수업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조건들을 분석해 가도록 하는 인지적인 코칭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학습자의 반응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예비교사 스스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법들이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었을 때, 예비교사는 왜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거나, 반대로 전문가가 수업의 상황이나 예비교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수업 컨설팅의 제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술교과에서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이유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이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추미경과 안금희(2007: 546)는 미술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술 수업에서 교사의 수업 딜레마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넘어서서 학교 교육의 총체적 차원에서 교사가 처한 맥락에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술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다양한 차원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이상이나 의도는 교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들의 기대 혹은 공시된 미술교육 목적 등과 상충하면서 갈등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술교과의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한다”(추미경, 안금희, 2007: 578). 즉 수업이란 교사의 이상과 학습자라는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적 경험과 교육적 변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수업 컨설팅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신념, 교과에 대한 인식, 수업

을 위한 목표 등에 비추어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경숙과 박미애(2005: 52)는 예비교사 수업장학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교사양성기관의 수업 장학에 대한 문헌과 예비교사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예비교사 중심의 수업 장학인 “예비교사 자신의 교직에 대한 학습에 좀 더 많은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동시에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교사양성기관을 통하여 예비교사가 교사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교직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교사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수업 컨설팅은 미래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2. 수업에 초점을 둔 수업 컨설팅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의 대상이 교사가 되는 준비과정에 있는 관계로 교과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적, 방법적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교직, 교과, 학교, 수업, 학습자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부분에 관한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예비교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교사와 수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람 간에 수업 컨설팅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하게 공유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컨설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업 컨설팅의 초점을 예비교사의 수업 능력에 두고 수업행동에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신념, 자질, 효율성 등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 컨설팅이 수업에 초점을 둬으로써 수업 개선을 통한 학습 효과의 극대화라는 장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장학이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교사들은 장학의 활동을 행정적인 절차 혹은 형식적인 일과로 인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비교사들이 수업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교사 준비과정에 또 다른 과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업에 초점을 둔 수업 컨설팅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하여 수업기술을 향상하는 교육적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학과 수업 개선이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이석열과 신봉섭(2004: 49)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만약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본질을 다루는 수업 장학 체계를 전개하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학을 계속한다면 그런 장학으로 교사를 간섭하기 보다는 혼자 두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수업개선이 궁극적인 목적인 장학으로 장학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시점이다.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이 궁극적으로 수업 기술을 개선하는 장학의 성격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실습과 수업 컨설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장경숙과 박미애(2005)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비교사의 마이크로티칭, 수업 관찰, 교생 실습 등이 수업 컨설팅이라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관련지어 진행될 수 있을 때 예비교사는 자신의 수업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현장교사가 개별적인 예비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협동 장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론과 실체가 연계된 수업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환과 이계연(2005: 22)은 교사의 수업 평가에서 수업능력, 수업수행, 수업 효과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수업 능력은 교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등의 단일 능력들이 축적된 전체로서의 능력 체계를 의미하며, 수업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수업 전략과 수업기법 등 다양하며 이들 제반 요소가 체계적으로 접근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수업 능력을 측정한다. ...수업 수행은 실제 수업활동 상황에서의 교사의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서 수업 효과성과는 다르다. 수업 수행은 교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라는 교사행동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반면에 수업 효과성은 교사가 가르친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 예비교사의 수업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업수행과 효과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업 개선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업 효과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업수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효과성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행동에 집중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능력은 단지 교사 개인이 가지고 특성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비교사의 수업 행동에 초점을 두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업 개선이라는 수업 장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예비교사의 수업 기술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 컨설팅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교사로서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에게 반성적 사고를 토대로 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양성 기관에 관한 법 제44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조동섭, 2005: 400). 현재까지의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교과 관련 내용과 방법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즉 교사 준비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 진출한 후에도 스스로 생애에 걸쳐 자기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Korthagen 외(2007)은 교사교육에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예비교사들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예상하여 준비시킬 수 없음을 지적한다. 지식의 전수는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교육의 목적과 방법, 학습 자체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 기존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사 준비의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Korthagen 외(2007: 101)는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비교사는 이른바 성장능력, 즉 준비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스스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능력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혁신적 능력을 촉진한다.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 컨설팅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훈련할 수 있다. Zimmerman(1994)은 미술교육 영역에서 예비교사들이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연구방법들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신의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상황에 대한 맥락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교사의 연구는 이론가의 연구와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를 것이다. 교사의 연구는 자신에 대한 탐구이자 수업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로서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과정에는 복잡한 연구방법론 혹은 기법들에 앞서 주어진 상황과 현상, 그

리고 자신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발견하는 사고과정 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수업행동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 해석,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 과정을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Ⅲ. 예비교사 대상 미술과 수업컨설팅 사례 분석

1. 예비교사 대상 미술과 수업컨설팅 방법

본 연구의 예비교사 대상 미술과 수업컨설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교사 중심의 수업 컨설팅, 수업에 초점을 둔 컨설팅,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 컨설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용 미술과 수업컨설팅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수업 컨설팅의 목적 및 기대 등을 기술하는 단계이며, 둘째, 수업 반성하기 단계에서는 수업 실행을 하며, 혹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반성하기로 구성되었으며 예비교사 스스로 반성적 일지를 작성해 봄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실천으로부터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업 후 컨설팅하기 단계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한 주제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넷째, 개선 방안 찾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그 방안들을 찾아보는 단계이다. 이러한 수업컨설팅 모형의 특징은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에 제시된 네 단계는 기술, 해석, 평가, 주제론으로 구성된 Eisner의 교육 비평과 Korthagen 외(2007: 195-227)가 ALACT 모형을 기초로 본 연구의 수업 컨설팅의 범위와 성격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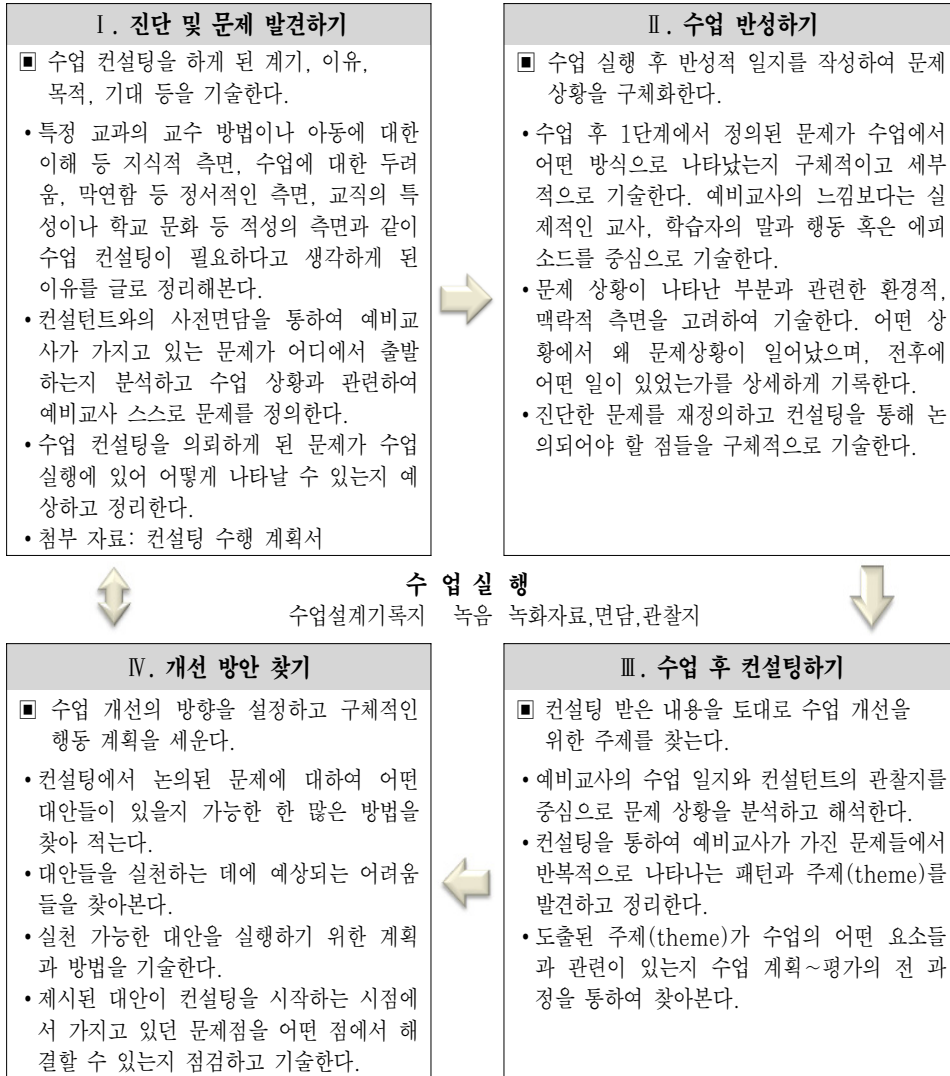
Eisner의 교육 비평은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주제론(thematics)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기술(description)은 교사의 행위와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내고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해석(interpretation)은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평가(evaluation)는 수업이 가지는 가치를 식별해 내는 과정이며, 가치에 대한 판단이 수반된다. 마지막으로 주제론(thematics)은 특정 교사에 대한 관찰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나 일반화할 수 있는 주제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즉 특정 교

실에서 나타난 가능성과 문제점에 내재한 원리를 발견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Korthagen 외(2007: 195-227)는 교사교육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ALACT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ALACT는 행위-행위 되돌아보기-본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행위의 대안적 방법 도출-시도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 반성의 단계를 지속하여 전문성을 개발하는 나선형 지도과정이다. 이러한 모형과 같이 반성적 사고의 단계 혹은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반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단계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컨설팅 방법은 예비교사가 수업 실행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는 과정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진단, 수정하는 임상 장학의 개념이 아닌,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 수업 분석 및 문제점 인식과 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수업 개선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예비교사의 부족한 측면을 미지적으로 개선해 주기 보다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진단, 분석, 주제도출, 개선 방향 수립의 순환적인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수업 컨설팅은 개별 수업에 대한 처방이기 보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연구자적 교사의 자질을 하나의 수업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표 1〉 예비교사 대상 미술과 수업 컨설팅 단계



2. 예비교사 미술과 수업컨설팅 사례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계획, 수업 실행 및 수업 반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교육대학교의 교내 수업 연구회에서 발표된 수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컨설팅트 교수와의 이메일과 수업관찰 등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컨설팅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수업 컨설팅 절차

컨설팅 대상	컨설팅 시기	컨설턴트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 단계	수업 반성하기 단계	수업 후 컨설팅하기 단계	개선 방안 찾기 단계
안 예비 교사	교내 수업 연구회의 수업 발표 2009. 12월 22일	교수	이메일 (담당 교수)	이메일 (담당 교수)	수업 관찰 및 수업 후 면담 (담당 교수)	이메일/면담 (담당 교수)

컨설팅의 특성 상 예비교사의 미술 수업의 계획, 고민, 실행, 반성 등이 수업 컨설팅 단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해소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설팅 사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안 예비교사 미술과 수업컨설팅 사례

안 예비교사는 위에 제시된 수업컨설팅의 단계에 따라 수업을 계획, 분석,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 예비교사가 작성한 아래의 내용은 예비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되돌아보고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수업 계획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정의하며, 교사로서 자기개발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 단계

안 예비교사는 본 연구의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면서 5학년 수목화와 채색화 단원과 관련된 수업을 준비하였다. 안 예비교사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작품의 선정과 학습자의 감상을 촉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발문과 피드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였다.

다음은 첫 단계인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에 대한 안 예비교사의 글이다.

〈표 3〉 예비교사의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 단계

예비교사의 진단 및 문제 발견하기
<p>3학년 2학기 수업 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다. 그 전에도 기회가 있다면 한 두 번 정도 수업 시연을 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학생들을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학교의 교실을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가정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되었던 수업 실습이 끝난 후, 수업은 정말 어려운 것이며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중략 일련의 수업을 통해서 첫째, 미술교육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로워할만한 미술 작품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관도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하지만 막상 수업을 계획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졌다. 교과서와 지도서에만 의존하더니 너무 자료가 부족하고, 활동 방법도 흥미롭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의 '알고 줌' 미술에 대한 교양을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려니 그것 또한 쉽지 않았다.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미술 작품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하지만 그것들이 좀 더 교실 환경,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은 내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p> <p>둘째, 비단 미술 수업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발문과 피드백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머릿속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가 가장 자주하게 되는 질문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같아요?'라는 다소 모호한 질문들이다. 질문의 초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인지, 학생들은 쉽게 무슨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p> <p>셋째, 시간 관리에 대한 능력이다. 40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미술의 경우 학생들의 활동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한 차시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지역 컨설팅에서 할당 받은 시간은 1시간이었고, 나는 이번 수업에서 감상을 주로 하되, 감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창작 활동을 활동 하나로 구성하였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해야 내가 의도하는 내용들을 모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좀 더 경험이 쌓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p> <p>이상 내용은 평소 내가 컨설팅을 받고 싶었던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지역 컨설팅 수업에 대해 내가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컨설팅을 받고 싶다.</p> <p>첫째, 동기유발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 컨설팅의 경우 아이들도 나를 낯설어 할 것이고, 나도 아이들이 낯설다.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가 고민된다. 이번 수업에서는 마니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산'으로 화제를 집중시키고, 영통동구와 관련해서는 틀린 그림 찾기를 도입하였다. 관련된 음악이나 옛날 이야기, 동영상 등으로 동기유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접해보고 싶다. 동기유발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도 수업 전체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p> <p>둘째, 발문과 피드백에 관한 부분이다. 지도안에 쓰여있는 발문들이 적절한 것인지, 특히 학생들이 사고를 촉발하고 학생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발문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p> <p>셋째, 동양화 감상 수업을 위한 실제적인 지식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나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전시회도 가보지만 미술관과 교실과의 거리가 아직은 너무 먼 듯한 인상을 받는다. 참고할 만한 책이나 영화 목록을 추천받는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p>

(2) 수업 반성하기 단계

안 예비교사는 수묵화와 채색화 단원을 강세황의 <영통동구>를 중심으로 한 감상활동을 설계하였다.(부록 1 참조) 5학년에서는 서양 미술과 다른 전통 미술의 특징과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수화 감상에서 인물, 여백, 화제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수업을 수행한 후 작성한 안 예비교사의 수업 반성하기는 다음과 같다.

〈표 4〉 예비교사의 수업 반성하기 단계

예비교사의 수업 반성하기
<p>지도안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난 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산수화 속의 인물이 왜 작게 그려져 있는가에 대한 발문을 그대로 수업 시연에 적용했다. 동양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특히 자연에 대한 철학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발문은 그런 핵심을 잡아주기 적절한 것이었다. 그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오주석의 한국미 특강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그림마다 보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조상들의 경우 자연스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이 옮겨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영통동구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보게 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발문은 삭제하였다. 대신 조상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학습 목표를 세로쓰기로 제시하였다.</p> <p>컨설팅을 받으며 화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감상 수업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운 점이 교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폭이 좁고 얕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감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 화제를 제목, 설명, 일기, 제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접근 방법이었다. 제발에 초점을 맞춘 후, 학생들이 그린 그림에 동료 학생들이 제발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매화초옥도나 인왕재색도처럼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을 활용하는 것도 감상 수업을 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림 속의 이야기, 화가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그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그림을 의미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중략...</p> <p>영통동구를 변형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작품을 구상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더 나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한 학생은 작은 소품 하나도 그려 넣지 못했다. 일단 인물이라도 그려 넣기 시작한 학생들은 그림을 수월하게 채워나갔는데 그 학생은 결국 아무 것도 그려 넣지 못했다. 인물, 여백, 화제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변형할 작품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발문을 했더라면 따로 구상시간을 주지 않아도 충분한 작품 구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 오늘의 활동을 소개했더라면 학생들이 영통동구 변형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수업을 했던 대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창작 활동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수업 후에 듣게 되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만화를 그리는 등 그리기 활동에는 큰 흥미를 보이고 적극성을 띠었다고 하였다. 이번 수업의 특성상 미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난 번 수업 실습 때 6학년 학생들을 맡았던 경험을 떠올려 수업을 구성하였다. 지난 번 학교에서 고학년들은 창작 활동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낮았고, 귀찮아했다. 그래서 창작 활동보다는 감상 활동에 초점을 둔 수업을 설계한 것이었는데, 창작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두었더라면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p> <p>원래 지도안에는 영통동구를 변형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18분으로 할애되어 있었다. 학생이 10명이</p>

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발표를 들을 수 있겠거니 하고 계획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해 보니 영통동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이 다시 길어지게 되었고, 정작 창작 및 발표 시간으로는 12~3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준비한 것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감상 수업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말이 다소 길어진 탓인가 보다. 약간 시간이 부족했고, 이것 때문에 좀 촉박하게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충분한 창작 시간을 주지 못해 아쉽다.

세 번째 활동이 강세황에 대한 소개였다.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이야기 전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들이 있었다. 강세황에 대한 소개를 넣은 이유는 학생들이 작품을 좀 더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경험하고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강세황이라는 인물 자체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컨설팅 담당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교사의 스토리텔링도 인상적이었다고 평해주셨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정리부분이었는데 다소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었다고 평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인물과 여백, 화제로 초점을 모은 활동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번 수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수업 하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나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나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도 되었다.

(3) 수업 후 컨설팅하기 단계

컨설턴트였던 연구자는 안 예비교사의 수업을 관찰한 후 바로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예비교사가 컨설팅을 받고자 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 글은 컨설턴트가 수업에 대한 분석 자료로 예비교사에게 보낸 컨설팅 내용이다.

〈표 5〉 컨설턴트의 수업 후 컨설팅하기 단계

컨설턴트의 수업 후 컨설팅하기
<p>미술 수업에서 동기유발과 발문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그러하지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말을 쉽게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발문들을 적절하게 구사한 것 같아요.</p> <p>먼저 크게 보면 이 수업에서 학습내용으로 삼은 자연과 사람, 여백, 화제는 한국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화의 이러한 내용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 수업에서는 쉽게 잘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p> <p>동기유발에서 놀이는 가장 쉽게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에서 다른 점을 찾는 놀이와 같이 비교적 쉬운 놀이 과제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친밀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업의 진개를 보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생각되요. 놀이를 하는 자에게는 놀이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 내거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단지 몰입하고 재미를 느낄 뿐입니다. 이러한 놀이의 특징은 놀이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부담없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활동에 재</p>

미를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미술 활동 관련 놀이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미술교육에서 놀이 관련한 논문도 몇 년 전에 썼지요. 미술교육에서 놀이의 유형을 보다 다양화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유형별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들을 개발했었지요. 이 수업이 또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의 작품만이 아니라 과거의 작품을 재해석한 현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전통 회화가 정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참 재미있는 시도였지만 시간의 문제인지 충분히 학생들과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다루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웠어요. 이러한 점에서 이어지는 나만의 영통동구를 만들어 보는 활동에서 학생들이 보다 새로운 시도와 의도를 갖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이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명화 재구성은 이제 미술 수업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이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특히 과거의 명작에 대한 현대 화가들의 재해석에서는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학생들도 어떠한 의도로 과거의 작품에 자신만의 색을 입혀 내는가가 작품 자체의 결과물 이상으로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요.

마지막 부분에서 강세황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친근하게 미술에 다가가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다양한 레퍼토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적시 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교사의 전문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폭넓은 경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미술관을 가거나, 미술서적이나 미술 문화 관련 뉴스나 소식에 귀기울이고, 미술계에 더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는 미술가들과의 교류 (예를 들면 미술전시회 참여, 미술관의 도슨트 자원봉사 등)를 통해 미술에 관한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개선 방안 찾기 단계

안 예비교사는 컨설팅의 전 과정에서 느끼게 된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안 예비교사가 생각한 개선 방안 찾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예비교사의 개선 방안 찾기 단계

예비교사의 개선 방안 찾기
<p>이번 수업을 마친 후 나는 몇 가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을 갖게 되었다.</p> <p>첫 번째는 감상 수업을 위한 적절한 발문과 피드백에 대한 훈련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설명이라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수업은 나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자 구상한 수업이었다. 이런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너무 교사가 말이 많지는 않았는지, 열린 발문보다는 닫힌 발문, 답이 정해진 발문만을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좋은 감상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작품에 깊이 몰입하고 작품에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작품, 매력적인 작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어떤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을 작품의 세계로 초대하느냐가 더</p>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싶다.
 둘째, 감상과 창작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물론 감상과 창작은 서로 배치되는 활동이 아니다. 감상을 통해 창작의 수준을 높이고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창작을 통해 심도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 이번 수업에서 창작은 감상을 돕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수업 후에 피드백을 받다보니, 창작 활동이 다소 미진했다는 평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감상을 심화하기 위한 창작 활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창작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한 차시의 수업 동안 창작 활동과 감상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깊이의 감상을 하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목표로 하는 창작 활동을 구상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미술 수업에서 반드시 창작 활동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동아리 원들끼리 토의 과정에서 차라리 변형 활동을 빼고 감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떨을까하는 의견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영통동구를 변형한 것이 감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창작 활동으로서 적절했는지, 적절했다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졌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바람이다.

2) 안 예비교사 미술과 수업컨설팅 사례 분석

안 예비교사는 감상 수업에 관심이 많은 교대 3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으로 미술관을 자주 가기도 하며 미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갖고 있다. 안 예비교사는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미술교육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로워할만한 미술 작품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둘째, "수업에서 발문과 피드백이 가장 어려워요."

셋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예비교사는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교육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들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 예비교사의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인 가치 대 학생의 흥미

안 예비교사는 미술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의 내용이나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술교육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내용과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내용간의 접점을 찾는다는 생각은 최근 교육계의 팽배한 생각을 반영한다. 안 예비교사의 경우 이번 감상 수업에서 비교적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한국화 감상은 다른 미술 작품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지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포토샵으로 미술 작품의 배경(여백)을 다른 색으로 칠해서 감상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명화를 재

구성 해보는 표현 활동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를 보다 친근감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등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안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과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바로 이러한 수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둘째, 유의미한 발문과 적절한 피드백

많은 예비교사들이 발문과 피드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모호한 질문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거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서 힘들어 한다. 수업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질문이 불명확했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봤는지 자신의 수업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반응은 예비교사의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전 시간에 학생들은 담임선생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이 물어 보니까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더 면밀하게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예비교사와 그 수업을 컨설팅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특정 현상의 원인을 예비교사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감상과 표현의 시간 배분

수업에서 시간 배분의 문제도 예비교사들이 흔히 지적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안 예비교사의 경우 수업에서 시간 배분의 문제는 감상 활동과 표현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 여실히 대두된다. 안 예비교사는 감상과 창작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감상 수업에서 영통동구를 재구성하는 표현활동이 얼마나 감상의 깊이를 더했는지,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은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초등 감상 수업에서 흔히 명화 재구성과 같은 간단한 표현 활동을 감상 활동과 더불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업의 목적이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화 재구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단지 끄적거리는 활동으로 명화 재구성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안 예비교사의 고민은 감상과 표현 활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통동구>를 변형하는 명화 재구성이 감상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활동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감상과 표현은 몇 대 몇의 비율로 구성하면 된다는 식의 처방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명화 변형과 같은 명화 재구성이 갖는 교육적 의

미는 구체적인 수업의 장 속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화 재구성이 미술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 있다는 것을 수업의 장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 예비교사의 경우, 〈영통동구〉를 재구성하여 표현 하는 활동에 앞서 검재 정선의 〈박연폭포〉와 〈단발령망금강〉을 현대 화가들이 재해석해서 그린 작품 〈신박연폭포〉와 〈신단발령망금강〉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영통동구〉를 자신의 시각으로 그림을 바꾸어 그리도록 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화가가 그림을 바꾼 것처럼 나만의 〈영통동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보이게 진하게 그려요”,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 보세요”라는 말로 표현 활동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명화 재구성에 앞서 과거의 미술 작품을 현대 화가들이 재해석하여 제작한 현대 작품들을 보여줌으로써 미술에서 기존 작품을 활용하는 표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작품의 제시는 감상 활동에서 표현 활동으로의 전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안 예비교사는 현대 작품에서 작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다. 현대 화가들의 명화 재구성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명화를 재구성하는 활동에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기존 작품을 다르게 변형하고 재구성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안 예비교사의 수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컨설팅을 통해 예비교사의 컨설팅이 갖는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컨설팅

우리는 흔히 예비교사는 수업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학생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생각한다. 그러나 수업 실습을 지도한 김 현장 교사는 예비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세대에 맞게 예비교사들은 기발한 활동을 생각하여 아동들에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면서 담임선생님도 한 수 배울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아동의 흥미만을 돌구는 산만한 수업이 아닌 동기유발에서부터 활동, 평가까지 한 궤를 뚫는 정갈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비교사에게 당부해 본다. (김 현장 교사의 글, 2009년 12월)

김 현장 교사가 보기에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해 매우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점은 높이 사는 반면 수업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들의 수업에서 동기 유발이나 재미있는 활동은 제법 잘 준비하는 반면 수업에서 중요한 평가와 시간 배분, 수업 마무리 등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하곤 한다.

위의 내용은 예비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예비교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리는 즉 이들의 장점을 살리는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컨설팅이 지나치게 현실적인 수업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틀에 이들을 맞추려 하기 보다는 컨설팅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비교사 수업 컨설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실천을 반성함으로써 수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컨설팅에서 컨설턴트에 따른 관점의 차이

안 예비교사의 경우는 수업에서 컨설턴트에 따라 특정 활동에 대해 컨설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안 예비교사는 산수화를 주제로 한 감상 단원을 개발하였는데, 이 수업의 내용을 보면 미술 교과서의 내용에는 없지만, 관련 단원으로는 5학년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을 감상하는 감상단원과 연결이 된다. 이 수업에서 강세황의 <영통동구>라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산수화에서 여백의 의미, 자연과 인물의 관계, 화제의 의미 등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이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작품에서 위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서 감상하는 활동, 명화 재구성하는 표현 활동,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이 전개되었다. 이때 마지막 활동인 작가의 초상화를 감상하면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에 대해, 현장 교사는 정리 단계에서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한 반면, 담당 교수의 평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먼저 감상한 작품이 더욱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활동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이 활동을 개발한 수업자의 의도는 학생들이 <영통동구>라는 작품의 맥락 즉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더 의미 있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일한 활동에 대한 상반된 컨설팅 의견에서 컨설턴트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하나의 컨설팅 사례에서 컨설턴트 관점의 차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사와 담당 교수간의 관점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예비교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컨설팅에서도 현장 교사의 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에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형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컨설팅이란 컨설턴트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점 등을 인식함으로써, 좋은 수업이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자신의 수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이것이 다음 수업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의 사례는 컨설턴트의 관점에 따라 컨설팅이 다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컨

설팅의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컨설팅이 지나치게 수업 자체에만 집중하여 예비교사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구성하고 실행하였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그 컨설팅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컨설팅이 단순히 수업에 대한 처방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의 전 과정에서 예비교사와 컨설턴트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자신의 실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정안을 개발해 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컨설팅에서는 수업 후의 분석이 보다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컨설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음 네 가지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수준이나 흥미 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은 실제 초등학생들과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수준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이러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효과적인 발문과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다.

미술 수업에서 발문과 피드백은 수업의 내용이 비교적 잘 짜여져 있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그때그때 학생들의 작품 제작 활동이나 다양한 참고 작품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업의 목표나 학습 내용에 따라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발문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교과나 학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이다.

셋째, 수업 내용이나 자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

미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선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화, TV 등의 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영상 자료, 인터넷의 각종 동영상 자료, 여러

유형의 미술 작품 자료, 디자인 관련 다양한 사진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업의 도입이나 전개, 정리 단계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구성할 지의 문제는 예비교사들의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넷째, 적절한 수업 시간 배분 운영이 어렵다.

예비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시간 분배라 할 수 있다. 도입-전개-정리라는 수업의 구성 요소 이외에도, 미술 수업에서 표현과 감상 활동의 시간 배분은 수업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혹은 수업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시간 배분의 문제는 다르게 인식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수업 시간 배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로 하여금 적절한 판단을 요구한다.

예비교사는 현장 교사와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업 컨설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흔히 예비교사는 수업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학생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경험이나 지식, 여건 등을 최대한 살려 이들의 장점을 살리는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실천을 반성함으로써 수정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즉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컨설팅이 교육적 경험이 되어야 하며 곧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정희·안금희(2007)에서 현장 교사는 수업 내용을 계획할 때에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컨설팅이 교육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경우 수업 후 분석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 후 분석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컨설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이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컨설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 세 가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은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는 임상 장학의 개념보다는 교사 교육의 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컨설팅의 과정이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교사의 수업이 많은 부족함과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혹은 컨설턴트는 모든 문제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기 보다는 컨설팅을 통하여 반성적 사고의 습관을 기르고 수업 능력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경험

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컨설팅은 일회적인 방식이 아닌 연속적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컨설팅을 통하여 도출된 수업 개선의 내용을 다음 수업 실습을 통하여 실행한 후 수업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업 컨설팅에서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보다는 예비교사가 가진 장점에 주목하는 것은 수업 컨설팅이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장교사들은 예비교사들이 대체로 수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이나 교과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술교과에서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의 내용 및 방법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할 때, 학습자들에게서 보다 많은 창의적인 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교사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참신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수업 컨설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는 개인의 교육 철학과 교직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교사교육 과정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사는 학교와 교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습자가 교사에게 갖는 기대는 무엇인지 등 실제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와 경험만을 제공한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을 토대로 교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컨설팅의 내용이 수업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예비교사가 선정한 제재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수업에 활용된 교수학습 방법은 지식에 대한 혹은 학습자에 대한 어떤 전제에 기초하는지, 수업 활동이 학습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술교과와 경우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미술교육에 대한 태도, 가치부여 등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비교사가 교과에 대한 자신의 교육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좋은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컨설팅은 수업을 중심으로 미술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혹은 가장 효과적으로 예비교사의 교육적 신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예비교사의 수업 컨설팅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여 현장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를 파악하는 수업 실행 이전 과정까지도 고려되어

야 한다. 예비교사가 학교 혹은 교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은 예비교사의 수업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 외의 요인들을 수업 실행 이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예비교사는 최선의 수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컨설팅에서는 예비교사의 실제적인 수업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미술교과의 특성 상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현장 교사처럼 아이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해 오지 못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미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생각과 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실습에서 예비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의 진입과 학습자의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예비교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을 실행하면서 면담, 이메일 피드백, 모의 수업, 수업 관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유의미한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방법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면담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컨설턴트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컨설팅의 방법에 대해서도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업의 계획, 실행, 반성의 전 과정에서 컨설팅의 방법으로는 이메일 피드백과 직접 면담, 수업 녹화와 분석, 수업 관찰, 모의 수업 실행 등의 방법이 가능하겠다. 절차의 간편함만을 고려한다면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예비교사들이 선호하지만,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것들에 대한 컨설팅은 직접 면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수업 녹화와 분석은 예비교사의 자기반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 녹화와 분석은 수업자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행동의 특징들, 시간분배나 발문의 문제점들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에게만 발표를 시킨다거나 특정 모듈에게만 수업자의 동선이 집중된다는 점, 발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개인적 습관 등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모의 수업은 교사 스스로 수업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한 컨설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업 전에 모의 수업을 해보는 것도 수업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 특징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의 수업 실행이 필요하다. 모의 수업은 실제 자신의 교수 행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환, 이계연(2005).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수업능력 자기평가 방략에 관한 논리적 고찰. *교육평가연구*. 18(3). 19-38.
- 김정희, 안금희(2007). 미술교과 수업 컨설팅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7권. 241-285.
- 이석열, 신봉섭(2004). 교사발달의 구성 요인에 기초한 장학의 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2(3). 35-54.
- 장경숙, 박미애(2005). 예비교사 수업장학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초등영어교육*. 11(2). 33-60.
- 조동섭(2005). 교원양성대학의 기능과 역량 강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3(2). 399-419.
- 진동섭, 김도기(2005). 컨설팅 장학의 개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3(1). 1-25.
- 추미경, 안금희(2007). 초등 미술 수업 딜레마에 관한 질적 연구. *조형교육*. 29. 545-584.
- Glatthorn, A.(1997). *Differentiated supervision*. U.S.: Library of Congress.
- Korthagen F. et al.(2007). *반성적 교사 교육: 이론과 실제(조덕주 외 역)*. 서울 : 학지사.
- Zimmerman(1994). Current research and practice about pre-service visual art specialist teacher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35(2). 79-89.

【부록 1】

수업 설계 기록지	
예비교사: 안**	작성일: 2009. 12. 3
단원명: 수목화와 채색화	학년: 5학년
제 재: 강세황의 영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의 연계 	
5학년 학생들은 이미 4학년 때 우리나라의 여러 종류의 미술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한 바 있다. 4학년 때까지의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에 대한 감상은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전통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5학년의 감상 영역은 이에 더 나아가서 감상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특징과 차이 등 기본적인 비평을 통하여 작품의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미적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의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의 미술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우리의 미술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미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학년 학생들은 전통 미술 감상이 서양미술 감상과 다른 점들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미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수업은 산수화 감상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인물, 여백, 화제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산수화를 비롯한 우리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개념 	
산수화, 여백, 산수화 속의 인물, 화제(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지식, 이해) 산수화에서 여백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산수화에서 인물의 효과와 의미를 알 수 있다. 화제(글씨)의 효과와 의미를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기능, 태도) 산수화에서 여백, 인물, 화제를 찾을 수 있다. 영통동구의 인물, 여백, 화제를 변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1. 산수화를 인물, 여백, 글씨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작품을 변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산수화에서 인물, 여백, 화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변형한 영통동구에서 인물과 배경이 잘 어울리는가? 변형한 영통동구에서 화제가 전체 그림과 잘 어울리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 및 과제 	
영통동구 변형 활동지; 인물과 화제가 생략된 영통동구 활동지. 학생들은 이 영통동구에 인물과 배경, 화제를 집어넣어 자기만의 영통동구를 만들게 된다.	

【Abstract】

A Case Study on Art Class Consulting for Pre-service Teachers

Ahn, Keum-He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un-Ah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in art education is to give the chance of teaching a meaningful class and reflecting upon the practice, as well as to provide helpful information and support for improving teacher performance. Based on the concept of pre-service teacher centered consulting, class centered consulting, and reflection centered consulting, this study develops the content and methods of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through a case study. The result of case analysis reveals that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in-service teacher consulting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should be regarded as the process of teacher preparation rather than as clinical supervision that purports to diagnose problems and make corrections. Second,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should raise the pivotal and fundamental questions that allow pre-service teachers to reflect upon their teaching philosophy. Third,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should include the preceding stage of classroom teaching, in which pre-service teachers enter in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school, build the relationship with in-service teachers, and get to understand students.

Key word: class consulting, pre-service teacher consulting, reflection.